

회갑 맞은 서예가의 '佛心'을 담다

박찬호 작가전...10월 23~29일 경인미술관서

의천 박찬호 작가의 전시가 10월 23~29일 경인미술관 1실에서 열린다. 올해로 회갑을 맞는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불화, 서예, 민화, 전각 등 6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민화와 서예에 조예가 깊었던 작가는 회갑을 기념해 여는 이번 전시에서 불화에 처음 도전해 눈길을 끈다. '관세음보살 삼십이 응신도' '심우도' '조양행화' 등 10점의 불화 작품은 물론 '반야심경' <금강경> 등의 서예 작품도 선보인다. "불교 집안에서 자랐고 동생도 30년 넘게 행화를 그릴만큼 불화와는 친숙합니다. 동생의 조언을 얻어 조금씩 불화를 그려 왔지



박찬호 작 '반야심경(해서)'

관세음보살도 등 불화부터 서예 민화 전각 60점 선배

만 전시는 이번이 처음인지라 감회가 새롭습니다."

서예학원을 운영하고 작품 작업에 집중하면서도 남한산성 장경사에서 운전봉사를 하는 등 평소 신행활동을 병행해온 작가는 후불명화는 물론 심우도까지 다양한 불화를 그려면서 불화의 세계에 흠뻑 빠졌다고 한다.

여기에 불경을 기반으로 한 서예 글씨도 더해졌다. 글자 한 자 글귀 한 구(句)에도 무량무변(無量無邊)의 뜻이 있어 한량 없는 복덕을 이룬다는 경면주사 범자(梵字) 대다라니경, 인보(印譜)반야심경, 금강반야바라밀경 5340자를 감자에 글씨로 새겼다.

서예가 박찬호 작가는 예서, 행서, 전서, 해서체는 물론이고 기묘한 32체의 독특한 분야까지 망라 또 한 줄기만의 필체를 고수해 작품을 표현해 냈다. (031)747-0909 정혜숙 기자

명상음악으로 감상하는 산사의 하룻밤

1박 2일 템플스테이 음반 출시



'산사에서의 하룻밤' 음반 표지

템플스테이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한 기획 제작 앨범이 나왔다. 콘텐츠코리아가 '산사에서의 하룻밤' 앨범을 내놓았다. 28곡의 명상 음악이 실린 이 음반은 'Flower' 'The Time Before Sunset' 등의 음악을 1박 2일의 템플스테이에 맞춰 구성했다.

콘텐츠코리아 신효철 대표는 "방송 명상 문화계 전문가들이 추천한 템플스테이 음반이다.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2년 여 기획 및 제작을 통해 나온 진정한 템플스테이 음반"이라며 "눈 감고 가만히 들으면 템플스테이 전 과정이 눈에 선하게 떠오르며, 마치 고즈넉한 산사에 온 듯한 감동과 여운이 그대로 전해줄 것"이라고 설명한다.

음반은 '입재식' - '먹을 만큼 털어먹는 법공양' - '33번 울리는 범종소리' - '향과 촛불을 켜고' 등 실제 템플스테이 프

로그래에 맞춰서 구성됐다. 물론 템플스테이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도 삶에 지치고 마음이 우울해질 때, 음악을 들으며 마음의 고요와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김진목 명상음악가는 "마치 고즈넉한 산사의 템플스테이에 온 듯 우리들 내면이 마음고요와 휴식, 성찰과 힐링을 주는 마음으로 듣는 음악"이라며 이 음반을 평가했다. 1661-3164 정혜숙 기자

불화에 담긴 한국인의 사후세계 그리고 '염원'

홍익대박물관 2013년 소장품 특별전 '내세에서의...'

불교가 삼국시대에 유입된 이후 16세기까지 널리 보급될 수 있었던 이유는 불교에 대한 학문적 관심보다는 사후 세계인 극락에서의 왕생 혹은 지옥에서의 구제라는 불교의 독특한 구원 가능성이 크게 작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교를 통해 한국인의 저변에 내재되어 있는 사후 세계관의 일면을 살펴보고자 하는 전시가 열려 눈길을 끈다.

홍익대박물관이 소장 불교미술 작품들을 23년만에 대중에게 공개한다. 2013년 소장품 특별전 '내세에서의 염원: 한국의 불교미술 (Visions of the Afterlife in Korean Buddhist Art)' 전시가 2014년 6월 27일까지 열린다.

홍익대박물관은 "이번 전시는 홍익대박물관 소장 불교미술 작품들을 23년만에 대중에게 공개하는 자리다. 불교미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문화재급으로 추정할 만큼 본교 소장품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예술성을 자랑하는 작품들을 선별했다"고 전했다.

회화 10작품과 조각 5점이 공개되는 이번 전시는 크게 세 분야로 구성된다. △불교의 수용 '영산회상도' △불교 사후 세계관 '아미타극락회상도 초본'과 지옥의 '지장보살도' △내세관을 통한 불교 미술의 독자화와 신앙의 확산 '삼장보살도'와 '진영' 등 세 분야로 나뉘어 관람객들을 찾아간다.



홍익대박물관은 2013년 소장품 특별전 '내세에서의 염원: 한국의 불교미술' 전시를 2014년 6월 27일까지 연다. 사진은 영산회상도(비단에 채색, 133×183cm)로 18세기 중반 작품.

'영산회상도' '선각아미타석판불' 등 회화 조각 내년 6월 27일까지 전시 한글 영문 텍스트 실은 도록도 발간



선각아미타석판불(고려)은 잘 연마된 점판암 표면에 음각과 양각을 혼합한 특이한 기법으로 새겨진 아미타불이다.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 18세기 중반, 비단에 채색, 133×183cm)는 인도의 영취산에 계시던 부처님의 설법모임을 도해한 작품이다.

설법회에 참석한 제 성중(聖衆)은 4열로 배치되었는데 화면 중앙의 본존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브리자형의 배치를 통해 본존으로 집중되는 구성을 보인다. 조선 후기의 영산회상도가 대부분 성중을 좌우 대칭적으로 일렬로 나타내는 것에 비해 본존과 제 성중을 크기와 표현을 달리하여 공간을 여유 있게 나타낸 방식이 특징적이다.

선각아미타석판불(線刻阿彌陀石板佛, 고려, 석재, 60×44.5×3.4cm)은 잘 연마된 점판암 표면에 음각과 양각을 혼합한 특이한 기법으로 새겨진 아미타불이다. 석질은 질 좋은 점판암으로 검은 빛이며 자연적으로 형성된 무늬가 8~13cm 간격으로 나타나 있다.

이번 전시는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을 거

쳐 한국에 전래된 이후 한국이 독자화한 양상의 실예(實例)를 조선시대 불화 중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뜻도 있다. 불교를 통해 한국인의 저변에 내재되어 있는 사후 세계관의 일면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국왕과 귀족의 시각에서 바라 본 불교라기보다 기층문화의 관점에서 접근한 불교라는 측면에서 이번 전시를 관람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한편, 홍익대 박물관은 전시와 함께 <내세에서의 염원: 한국의 불교미술 (Visions of the Afterlife in Korean Buddhist Art)> 도록도 발간한다. 두 편의 에세이와 개별 작품의 해설 텍스트, 그리고 한국불교미술사 관련 참고문헌으로 구성된 도록은 한글과 영문 텍스트를 동시에 게재해 해외 홍보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관람시간은 화·수요일 오전 10시~ 오후 2시, 목·금요일 오후 1시~오후 5시이다. (02)320-1323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천태종 불교사진공모전 금상에 '휴식'

1353점 접수 16점 수상... 10월 17일 시상식

천태종 제3회 불교사진공모전에서 이순희 씨가 작품 '휴식'으로 금상의 영예를 안았다. 천태종(총무원장 도정)은 10월 17일 인사동 갤러리 라미에르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금상을 받은 '휴식'은 6명의 동지승들이 무더운 여름 평상에 앉아 수박을 먹는 일상스러운 모습을 담아낸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중우 심사위원장(사진작가)은 "천진무구한 표정과 아주 자연스런 모습이 보는 사람의 미소를 짓게 하는 수작이라는 게 심사위

원들의 중론이었다. 구도와 내용 모든 면에 흠집을 떼가 없었다"고 평했다.

은상은 허현의 '미소', 박우현의 '청정수행길', 동상은 김중인의 '백중전도제', 박기철의 '동심', 김중석의 '산사의 겨울'이 선정됐다. 또 가장으로는 반태숙의 '다비시', 이재실의 '대조사전', 안태선의 '다비장 가는 길', 김금순의 '감로수', 장남진의 '백제미소길 산행'이, 장려상에는 진갑생의 '영산재', 박정금의 '탁발공양', 이세철의 '수양', 권일영의 '초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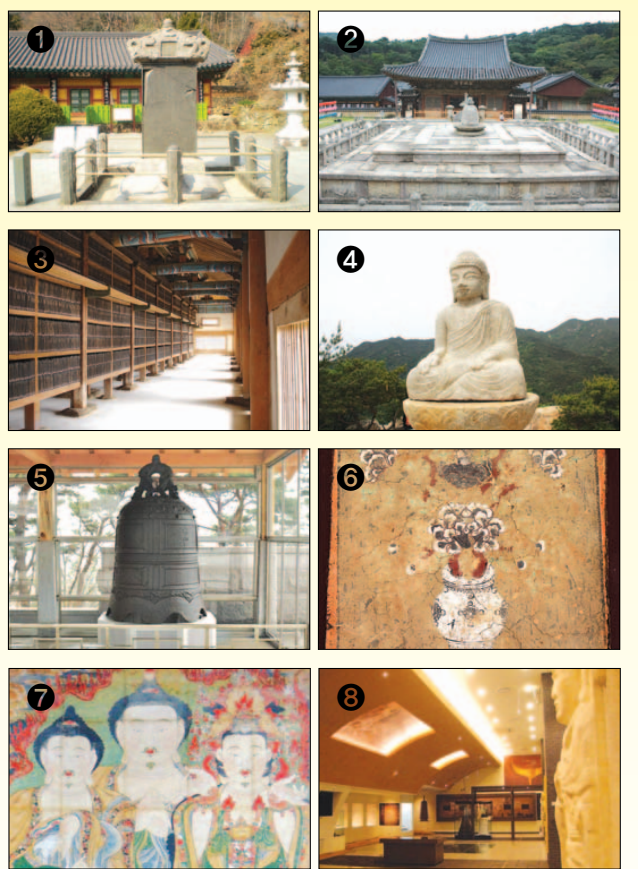


천태종 제3회 불교사진공모전 금상작 이순희의 '휴식'

김미옥의 '홍불사의 불'이 선정됐다. 한편, 천태종은 4월 30일~9월 2일 작품을 공모

했고 총 1353점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16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정혜숙 기자

21C 文化遺產 매니지먼트 시대로...



보존우리와 철학을 바탕으로 원칙에 충실하겠습니다

서진문화유산은...

- ▶ 문화재 보존과학 분야 실무 경력 20년 이상의 전문가가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 ▶ 국보·보물 등 다양한 보존처리 경험과 자문 및 컨설팅 활동을 통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 ▶ 산·학 연구시스템 구축(국립공주대학교, 용인대학교, 건국대학교 등과 산·학 협력 협약체결 등)
- ▶ 국내 최초 문화재보존 컨설턴트, CRM(Cultural Resource Management) 개념 도입
- ▶ HIP(Heritage Interactive Panorama) 국내 최초 기획·제작
- ▶ 박물관 전시 기획·설계
- ▶ 국·내외 전문가 그룹의 네트워크 형성



- 아름다운 사찰 및 문화재 360° 표현
- 불자들의 온라인 기도방(3D 참배)
- 신세대를 위한 온라인 포교 및 교육
- 홈페이지 활성 방안 제시
- 스마트폰 '앱' - 사찰 홍보 효과 증대
- 손쉬운 조작 - 접근성 용이
- 영구 기록보존
- 유료컨텐츠를 통한 수익창출

주요사업영역

- ▶ 문화유산 보존 - 석조, 목조, 종이, 섬유, 금속, 매장문화재, 유적보존, 벽화, 근대문화재, 3D스캔 및 비파과진단, 모형제작 및 복제, 환경미방제, 훈증소독, 방연처리 등
- ▶ 보존환경 관리 - 예방보존을 위한 정기적인 조사, 보존방안 제시
- ▶ 보존 컨설팅 - 보존에 관한 자문, 설계
- ▶ CRM 영역
- ▶ HIP 기획·제작
- ▶ 박물관 전시 기획
- ▶ 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기술개발
- ▶ 산·학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한 저변 확대 - 강의, 연수교육
- ▶ 문화상품 기획·개발
- ▶ 기타(출판 및 디자인 관리 제작)

주요사업실적

- [국보 제 47호] 쌍계사 진감선사 대공탑비 보존처리공사 ①
- [국보 제132호] 정비록 보존처리 및 영인본 제작사업
- [국보 제285호] 울산 반구대암각화 학술(3D)조사 용역
- [국보 제290호] 통도사 대웅전기단 및 금강계단 보존처리 사업 ②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해인사 대장경판 DB를 위한 표준화작업 ③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방충방부사업
- [보물 제146호] 창녕 관룡사 약사전 벽화 보존처리
- [보물 제218호]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보존처리공사
- [보물 제295호] 창녕 관룡사 용선대 석조여래좌상 보존처리공사 ④
- [보물 제925호] 하동 쌍계사 영산회상도 보존처리공사
- [보물 제1242호] 함천 해인사 김장삼 보존처리
- [시도유형문화재 제3호 외] 중국철제범종 보존처리 및 보호각 보수공사 ⑤
- [시도유형문화재 제139호] 수다사 명부전 벽화 보존처리 공사 ⑥
- [시도유형문화재 제165호] 봉선사대불 보수사업 ⑦
- [중요민속문화재 제3호] 광혜군 내의 및 상궁옷 보수정비
- 한성백제박물관 전시물 제작설치(토출전시 및 복원)
- 신경주역사 신축공사중 유물복제 및 유구이전 ⑧
- 세계유산등재추진 공룡화석(발자국) 레프리카 제작공사
- 연평도 전시자료 수습 및 보존처리, HIP제작 기타...

● 본사 : 경북 경주시 서부동 4-5 경주오씨마을 6010 ● 지사 : 경기도 평택시 하안로60 D동 610호(소하동 광명테크노파크) ● 전화 : (054) 771-9747, 02/2083-1520 ● 팩스 : (054) 771-9748, 02/2083-1521

서진문화유산(주) Seojin Con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 Co.